

대학 자체교육인증제 개선 방안 모색 -A대학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The Improvements of a College's Internal Accreditation System

서범종*, 하정윤**, 강지연***, 박태양***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충북대학교 교육혁신연구원***

Boem-Jong Seo(atime4us@chungbuk.ac.kr)*, Jung-Youn Ha(hajy9615@suncheon.ac.kr)**,
Jiyeon Kang(jyriver@chungbuk.ac.kr)***, Taeyang Park(solar@chungbuk.ac.kr)***

요약

본 연구는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제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대학 자체교육인증제의 시행배경을 살펴보고, A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대학 자체교육인증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대학에서 2016년도에 실시한 평가위원 및 인증위원과의 면담자료와 자체교육인증 관련 회의록 등을 Nvivo11을 사용하여 질적 자료 분석의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A대학의 사례를 통해 나타난 자체교육인증제의 운영상 문제점은 첫째, 학과의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에 따른 자체인증제 참여 부담, 둘째, 모호한 평가지표로 인한 보고서 작성과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확인되었다. 자체교육인증제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충분한 준비기간 제공과 준비자료의 세부 안내, 둘째, 구체적인 피드백과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셋째, 상시 성과기록 시스템 구축, 넷째, 별도 재인증 기준 마련, 다섯째, 학과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 설정, 마지막으로 자체평가보고서의 공통 양식 제공 등이 제시되었다.

■ 중심어 : | 평가 | 인증 | 자체교육인증제 | 고등교육 | 대학재정지원사업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internal accreditation system which is spontaneously operated by A university. To do so, this study reviewed the historical backgrounds and current issues of A university's internal accreditation system mainly based on government's accreditation and financial support programs on higher education institutes. And, this study also analyzed qualitative data which were collected via interviews with members of the committee of internal accreditation and the minutes of accreditation related meetings. These procedures were conducted by using Nvivo 11, which is specially designed for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the following: the current issues that A university's internal accreditation system faced included the faculties' unwillingness to participate due to the administrative work load caused by the internal accreditation program, and the difficulties of the preparation of evaluation reports caused by the ambiguity of evaluation standards. The measures for improving A university's internal accreditation system included (1)offering the enough time and detailed information for the preparation of evaluation reports, and (2)providing the specific feedback and the consist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3)establishing the ordinary recording system of achievement, (4)setting the standards for the renewal of accreditation, (5)setting the evaluation standards that considers the uniqueness of various faculties, and lastly, (6)providing the official templates for evaluation reports.

■ keyword : | Evaluation | Accreditation | Internal Accreditation | Higher Education |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College |

1. 서론

1995년 5·31 교육개혁에 따른 대학설립준칙주의 적용 이후, 많은 대학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오늘날 한국의 대학들은 존재의 위기에 직면하여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고령화 및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대학 환경이 변하고, 국가 간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가열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은 국가 경쟁의 전초기지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대학 교육의 질 제고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2000년 이후부터 교육의 질 보증 요구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 UNESCO와 OECD에서 교육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질 보장 장치를 마련하자는 의도로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Cross-Border Higher Education)의 질 보장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고등교육 질 관리의 총체적 책임자로서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정비의 필요성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1].

대학 교육의 질 관리가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불가피한 요청이 되면서 정부는 대학의 질 관리를 위한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8852호)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시행된 대학정보공시제도로 인해 대학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교육서비스 수준을 외부인도 쉽게 알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대학도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학사 관리 개선을 통해 대학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매진하게 되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학의 질 관리는 평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7년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평가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어 제정된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부령)』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각각 2008년 제정, 2009년 시행)에 따라 2009년에는 4년제 대학 자체평가가 전면 시행되었고, 2010년부터는 외부 평가·인증에 착수하여 현재 프로그램 평가 형식으로 평가·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

[2][3].

그러나 대학의 질 관리를 정부가 평가 방식으로 주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당사자인 대학 당국은 지속적으로 불만과 우려를 표출하고 있으며 대학 교수들의 약 70%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대학 교육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학재정지원사업이 평가와 연계되면서 교육부의 재정 지원사업은 대학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세금 낭비 사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4].

평가에 바탕을 둔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이나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상황에서 대학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체교육인증제는 주목을 받고 있으며,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대학을 교육 서비스 조직으로 볼 때[5], 교육수혜자를 위한 교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체교육인증제는 대학 자체적으로 대학 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과(부)를 인증해 주는 시스템이다.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사업(ACE)의 2012년 우수사례로 선정된 서울시립대학교의 ‘자체교육인증을 통한 교육의 질 관리’[6]가 소개된 이후, 다른 대학들이 벤치마킹하면서 여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교육인증시스템, 자체전공인증, 핵심교양인증등 여러 가지 명칭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자체교육인증제는 개별 대학에서 자체 개발한 시험적인 모델이어서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연구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한 재정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체교육인증제를 체계적으로 조직·운영하여 대학 교육 질 관리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대학 발전 및 자율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 인식하에 2013년에 자체전공교육인증제를 처음 실시한 이후 5년째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A대학의 자체전공교육인증제[1]에 대한 운영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1) 자체교육인증제 명칭과 관련하여 A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자체전공교육인증제로 기술함.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체교육인증제가 시행된 배경을 외부 책무성 측면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제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서 살펴보고, 운영 사례를 통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자체교육인증제의 시행 배경 및 현황

1. 외부인증제의 도입과 정착

인증(accreditation)이란 평가·인증기관이 대학운영 측면과 교육과정의 운영 측면에 있어 일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학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질 관리 및 책무성 강화 요구에 따른 평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7].

정부는 2007년에 평가를 통해 고등교육의 자율적 질 관리와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작업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평가항목(제11조의 2(평가))을 추가하였다. 이어 동조항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2009년부터 평가를 통한 질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2][3].

이렇게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시행하게 된 것은 90년대 몰아친 세계화·개방화의 추세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표준화된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과, 고등교육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자율적 질 관리를 위한 새로운 평가시스템의 도입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2].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육의 질을 제고 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대학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 이행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신뢰 유지를 위한 대학교육 측면의 평가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8]. 또한, 세계 대학들과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되어 대학 운영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9]. 이러한 배경 하에 국제화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의료계나 공학, 건축 분야에서는 자발적으로 인증원을 조직하여 90년대 말부터 운

영하게 되었다. 특히, IMF 경제 위기나 한미 FTA협상은 세계화의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게 만들었고, 자발적인 인증제 운영을 자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부터 시작된 고등교육기관 평가는 대학 자체평가와 대학 평가·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자율적인 평가시스템으로 구축되었고, 대학 평가·인증은 다시 기관 평가·인증과 프로그램 평가·인증으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다. 기관 평가는 교과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이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 전반을 평가·인증하는 것이고, 프로그램 평가는 역시 지정된 기관이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인증하는 것이다[4]. 일반적으로 외부인증이라고 할 때 주로 교육과정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평가·인증제를 말한다.

외부인증은 공식적으로는 인정기관 지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011년 간호학 분야부터 시작되었다. 2016년 말 현재 간호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경영학, 건축학, 공학 등 7개 분야에서 관련 기관들이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프로그램 외부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10-17].

2.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자체교육인증제

자체교육인증제는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하나인 ACE사업의 결과물로 대학 자체에서 고안하여 시행하고 있는 평가·인증제이다.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조치에서 출발한 대학의 개혁 조치는 우수연구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었던 김대중 정부의 BK21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WCU사업, HK사업 등으로 확대되었고,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구조조정 및 재정지원의 형태로 확산되면서 구체적이고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1.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18]

구분	대상 (지원단위)	'16년 예산	사업 기간
BK21 플러스사업	대학원 (사업단)	2,725억원	'13 ~ '20 (7년)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ACE)	학부 (대학)	594억원	'10 ~ 계속 (4년)

구분	대상 (지원단위)	'16년 예산	사업 기간
대학/전문대 특성화사업(CK / SCK)	학부/전문대 (사업단/대학)	2,467억원 2,972억원	' 14 ~ ' 18 (5년)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학부 (대학+사업단)	2,240억원	' 12 ~ ' 16 (5년)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사업(PRIME)	학부 (대학)	2,012억원	' 16 ~ ' 18 (3년)
대학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학부+대학원 (대학)	600억원	' 16 ~ ' 18 (3년)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대학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시작되었고 ACE사업은 그 중 하나인데, ‘잘 가르치는 대학’을 목표로 2010년에 시작되어 현재 8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이 사업은 대학의 자발적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여 선도적 학부교육 우수 모델을 창출하고 성과를 확산하여 대학의 질을 전반적으로 올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19]. 이를 위해 ACE사업에 참여한 학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 해마다 참여대학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소개하여 많은 대학들이 서로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진행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된 형태로 2017년 ACE+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목표로 대학의 건학이념, 비전 및 인제상 등을 구현하는 전반적인 학부교육 시스템 재선 지원이라는 당초의 사업목적은 유지하면서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잡고 있다[20].

자체교육인증제는 2012년 ACE사업의 우수사례(서울시립대 자체교육인증제)로 소개된 후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어 시행되었다.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의 효율성, 적절성에 있어서는 학과마다 차이가 존재[21]하며, 이에 외부인증제가 운영되지 않는 학과들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 자체적 노력의 일환으로 전공교육의 질 제고 방안이 제기된 것이다. 현재 교육인증원의 형태로 자체교육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은 부산대와 충북대가 있고, 동국대는 융복합교육센터에서 전공교육인증제를, 중앙대는 커리큘럼인증제를 통해 자체교육인증

을 시행하고 있다. 처음 자체교육인증제를 도입했던 서울시립대와 자체학과인증제를 운영했던 전북대는 자체교육인증사업을 종료하고 컨설팅 방식의 분야별 인증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대학 교육의 질 관리라는 측면에서 자체교육인증제의 분화된 형태로 사업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3. A대학의 자체전공교육인증제 운영 현황

A대학은 2011년 ACE사업에 선정된 후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 인증을 받지 않는 학과(전공)를 대상으로 대학 특성에 맞는 전공교육의 질을 보증하기 위해 2012년 7월에 교육인증원을 설립하였다. 2013년에 4개 단과대학 27개 학과에 대한 인증을 시작으로 2014년 2개 단과대학 10개 학과, 2015년 3개 단과대학 4개 학과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였다. 이후 2016년에는 2주기 인증에 돌입하여 같은 해에 3개 단과대학 17개 학과에 대해 재인증을 부여하였고, 2017년에는 3개 단과대학에서 2개 학과는 신규 인증을, 2개 학과는 재인증을 부여하였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54개 대상학과 중 38개의 학과(부)가 자체인증에 참여하고 있고 5개의 재인증 학과와 9개의 신규인증 대상 학과는 인증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증제를 실시한 후 5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안정적으로 자리잡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이미 인증을 받았으면서도 재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학과가 5개 학과에 이른다는 것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체인증에 개선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2. A대학 자체전공교육인증제 인증 현황

일자	내 용
2012. 7	교육인증원 설립
2013. 8	4개 단과대학 27개 학과 신규 인증
2014. 7	2개 단과대학 10개 학과 신규 인증
2015. 2	3개 단과대학 4개 학과 신규 인증
2016. 3	3개 단과대학 17개 학과 재인증

(2016.12.31 기준)

2015년 11월, 1주기의 성과를 점검하고 인증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인증을 교내의 관련 제도와 연계

하고 중복 평가를 배제하여 향후 외부평가에 대비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인증에 참여한 학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견을 참조하여 ‘절차 간소화, 지표 조절, 점검사항 구체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개선되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인증기준은 6개 영역, 32개 세부지표, 1개 가점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체전공교육인증은 학과(부)의 인증신청,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서면평가, 방문평가, 최종 인증의 절차를 거친다. 학과가 영역별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인증위원회에서는 단계별 평가 결과를 수합하여 최종적으로 인증보류, 2년 인증, 4년 인증을 부여한다.

표 3. A대학 자체전공교육인증제 인증 기준

영역	세부 영역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편성	교육목표의 설정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 운영	교과 교육과정
	비교과 교육과정
학생 지원	학업 및 적응지원
교수 지원	진로 및 취업지원
	교수 구성
	교수 지원
교육여건 및 환경	시설·장비 현황 및 계획
	행정·재정 현황 및 계획
성과관리 및 개선	교육과정 운영성과 평가 및 관리
	CQI 참여 및 환류실적
	교육과정 개선 체계

(2016.12.31. 기준)

I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자체전공교육인증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부권에 소재한 A대학교의 2016년도 상반기 자체전공교육인증 평가 및 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과 함께 평가위원과 인증위원의 면담자료를 분석하였다. 평가 및 회의의 진행시간은 각각 1시간 내외이며, 본

연구에 활용된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4. 분석 자료

일자	내 용	
'16.03.09 ~03.16	자체전공교육인증 방문평가 회의 녹음자료	8개
'16.03.30	자체전공교육인증 위원회 회의 녹음자료	1개
'16.03.24	자체전공교육인증 평가위원 회의 녹음자료	1개

표 5. 분석 대상 및 코드

자료원	코드	학과장	코드	평가 인증위원	코드
방문평가 회의록1	A	학과장1	1	평가위원1	가
방문평가 회의록2	B	학과장2	2	평가위원2	나
방문평가 회의록3	C	학과장3	3	평가위원3	다
방문평가 회의록4	D	학과장4	4	평가위원4	라
방문평가 회의록5	E	학과장5	5	평가위원5	마
방문평가 회의록6	F	학과장6	6	평가위원6	바
방문평가 회의록7	G	학과장7	7	평가위원7	사
방문평가 회의록8	H	학과장8	8	평가위원8	아
평가위원 회의록1	I			인증위원1	자
인증위원회 회의록1	J			인증위원2	차

2. 분석 절차 및 방법

분석절차로 1단계에는 녹음한 회의자료를 전사한 후 개별 자료를 읽으며 검토하였고, 2단계는 Colaizzi[22]의 분석법으로 자료원을 읽으면서 의미 있는 진술이나 문장 또는 구를 찾아내고 도출된 의미를 범주화하였다. 자료원을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질적 자료 분석 Tool인 NVivo 11을 사용하였는데, 자료원의 주요 내용을 NVivo 11의 Work Place에서 먼저 Node로 구분하였고, 도출한 내용을 추가로 읽고 검토하면서 핵심어로 유목화하였다. 핵심어를 다시 최종 4개 영역(문제점 2개, 개선방안 6개)으로 통합하며 범주 체계를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NVivo 11은 자료의 관리와 분석, 범주화 및 세부 내용 등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도구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질적 자료를 분석

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 뿐 아니라 연구진행 과정에서 일목요연한 정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자료원과 범주화한 항목 및 세부 내용은 연구진의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통해 타당화 과정[23]을 거치면서 진행하였다.

IV. 자체전공교육인증제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자체전공교육인증제 운영의 문제점

1.1 학과의 과중한 행정업무에 따른 자체인증 참여 부담

대학 차원에서 실시하는 학과평가와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위한 성과평가 등 학과 수준에서 준비해야 할 평가업무가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 자체전공교육인증제를 위해 학과에서 추가로 감당할 행정업무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자체전공교육인증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자체전공교육인증제를 시행하는 대학의 의도와 취지가 학내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과에 추가로 부과되는 행정업무 부담만으로 참여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너무 힘들어서 다음에는 쉽게 참여하지 못할 거 같습니다. 학과의 중요한 행사 준비와 일정이 겹쳐 준비에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성은 없지만 단과대학 차원이나 대학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또한 재정사업과도 관련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면도 없지 않아요. (중략) 인증 참여에 대한 취지를 더 알리고, 행정업무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봄이 어떨까 싶네요.” (G-7)

“paper work으로 학과도 교수도 모두 부담이 커서 참여 유도가 힘들 거예요. 장기적으로 시스템 자체에 녹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J-자)

“외부 인증과는 목적이 약간 다르다고는 하지만 자체인증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생겨요. 특히, 인증에 참여한 학과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참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회피하게 됩니다.” (J-차)

1.2 모호한 평가지표로 인한 보고서 작성과 평가의 어려움

자체전공교육인증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는 학과 대상의 다른 평가지표와 중복을 피하고, 학부 수준의 교육의 질 관리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수의 지표가 정성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정성지표를 통해 학과 특성에 따라 교육의 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평가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현재의 평가지표는 기준과 의미가 다소 모호하여 학과에서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인증기준에 따라 학과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표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 학과마다 양적,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간단히 기술하고 넘어가는 학과가 있는 반면, 세부 사항을 전부 제시하는 학과도 있고 지표별로 해석을 달리 하기도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지표를 명확히 하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I-바)

“단과대학별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더라도 정성평가가 중요시 되는 평가이니, 불필요하거나 모호한 지표는 삭제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것은 어떨까요? 평가위원들이나 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된 지표(안)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B-다)

2. 자체전공교육인증제 개선방안

앞서 자체전공교육인증제의 문제점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자체전공교육인증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과의 행정업무 과중에 비해 필요성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아 나타난 기피 현상, 그리고 인증 기준이 되는 평가 지표가 모호하여 나타나는 작성과 평가의 어려움 등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1 충분한 준비기간 제공과 준비자료에 대한 세부 안내
 학과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이유로 자체전공교육인
 증 참여를 꺼려하는 학과가 많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부서에서 학과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평가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충분히 준
 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학과에서는 학기 중에 상시로 인증제를 준비할 수 있도
 록 인증관련 세부사항 및 학기 중 준비자료에 대한 안
 내를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자체인증 운영 전반에 대
 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세
 부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가 필요해요. 사전 워크
 숍이 있으면 더 좋겠어요.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도
 세부적으로 할 수 있고, 준비기간도 충분히 주어졌으
 면 좋겠어요.” (D-사)

2.2 구체적인 피드백과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자체전공교육인증제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유인을
 위해 인증평가가 종료된 후에 인증 부여 학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하고, 인증 단계(4년 인증, 2년
 인증)에 대한 차별화된 보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인증시행 이후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학과 차원
 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과 차기 인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피드백하며 지속적
 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증을 받은 학과가 이후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
 는지, 인증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명시할 필요
 가 있으며, 인증 이후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차기 인증을 위한 준비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안내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I-사)

2.3 상시 성과기록 시스템 구축

자체전공 개선에 대한 노력이나 그에 대한 성과가 있
 을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성과를 기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제기되어 이를
 검토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주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과
 들은 1주기와 같은 보고서 내용을 입력하는 것보다
 시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즉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체크리스트 등의 성과기록 장
 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증빙자료 제출 등 업무
 효율화도 달성할 수 있고요.” (I-다)

2.4 별도 재인증 기준 마련

A대학의 경우 초기 인증이 각 학과 전공교육의 질 관
 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재인증 단계에서는 학과가 최초로
 설정한 질 관리 목표와 실천 방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
 는지,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문제 요소가 없는지 점검
 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재인증 단계의 인증기준은 초기 인증기준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도 비교·검토가 가능한
 수준에서 새롭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학과 운영계획에 대한 시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
 록 하거나 혹은 계획 대비 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재인증학과는 계획 중심의 기술보다는 추진사항이
 나 개선반영 사항 중심으로 기술하는게 좋을텐데 인
 증기준이 추가되거나 보완되거나 해야겠습니다.”
 (A-나)

2.5 학과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 설정

교수 충원율이나 학과 공간, 기자재 확보 및 재정지
 원 상황 등은 학과의 자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
 제임에도 불구하고 인증 판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어 학
 과의 개선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학과 규모나
 수업 특성 등에 따라 분반 기준이나 기자재 활용 등이
 이루어지므로 평가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학과 특성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 기
 준을 설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과관리 개선에 대한 내용, 즉 자체전공인증 이후
 개선사항에 대한 성과를 제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
 어요. (중략) 그러려면 인증기준이 구조적으로 잘 제

시되어야 하고, 개선 가능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요. 공간, 기자재, 재정 지원 등은 학과 책임으로 하기에는 무리이고, 당장은 어렵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정성평가가 위주로 구성해야 개선하고자 할 의지가 학과 측에서도 생기기도 하고 ... ” (C-마)

2.6 자체평가보고서 공통 양식 제공

A대학의 자체전공교육인증을 위한 학과별 자체평가보고서는 지정된 양식 없이, 개별 평가지표에 대해 학과에서 재량대로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작성 방식에 대해 학과 및 평가위원들은 해당지표에 무엇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 안내가 없어서 작성이 어렵다고 하고, 평가위원들은 학과별로 보고서의 질적, 양적 차이가 커서 평가에 어려움이 많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자체평가보고서의 공통적인 양식을 제공하여 작성하도록 한다면 학과 차원에서 평가에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입력할 수 있게 되어 보고서 작성 부담이 줄어들고, 평가위원도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학과마다 보고서 작성 양식이 너무 달라서 평가 기준을 잡기 어려웠어요. 작성 양식이 제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식이 명확하게 제시되면 학과에서도 보고서 작성 시 부담이 줄어들 거 같네요.” (C-마)

IV. 결론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의 질 관리 요구가 높아졌으며, 실제적으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역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대학 차원의 자발적 노력과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한 보상이 함께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과 시행령 및 규칙을 마련하여 2009년에 이르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이 정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 시기 대학의 모습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가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ACE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자체교육인증제는 대학의 수동적인 모습을 극복하고 개별 학과 차원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개선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외부인증제의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질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제도 운영상의 발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스스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자체인증제 운영을 위한 노력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또한 현재까지 자체전공교육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연구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인증을 받지 않는 학과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A대학의 자체전공교육인증제 운영 사례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한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겠다.

A대학의 자체전공교육인증제 운영 사례를 통해 나타난 인증제 운영의 문제점은 학과의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에 따른 자체인증제 참여 부담과 모호한 평가지표로 인한 보고서 작성과 평가의 어려움 등이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충분한 준비기간 제공과 준비자료의 세부 안내, 구체적인 피드백과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상시 성과기록 시스템 구축, 별도 재인증 기준 마련, 학과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 설정, 자체평가보고서의 공통 양식 제공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종합해보면, 학과(부)에 대한 자체교육인증제의 효과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체교육인증제가 유지되고 확산되려면 무엇보다도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자체교육인증제를 중단한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자체교육인증에 대한 오해와 그로 인한 거부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상벌을 결정하는 외부인증과 달리, 자체교육인증은 인증과정에서 노출되는 학과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는 것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체교육인증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학과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자체교육인증제가 학과와 대학의 발전을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는 점을 학내 구성원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21세기 미래사회,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교수, 학생, 교육시설 등의 다양한 항목의 개선을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 등이 함께 이루어질 때, 대학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본 연구가 보다 체계화된 자체교육인증제로 자리 잡는데 기초 정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김상철, 주영달, 방지우, 정양순, 신범철, 윤지희, 김명현, “인증기관 대학평가의 쟁점과 과제. 교육문제연구,” 제30권, 제1호, pp.157-201, 2017.

[2]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정책 추진현황*, 2010.

[3]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정책 사업개요*, 2011.

[4]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2067>

[5] 강민채, “교육만족도를 통한 대학생들의 대학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4호, pp.365-374, 2017.

[6] 교육과학기술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2012년 대학역량강화사업 우수사례집*, 2013.

[7] 신태진, “한국 대학들의 졸업인증제도의 행정적 발전방안,” 교육정치학연구, 제18권, 제4호, pp.141-163, 2011.

[8] 김대현, “시론-교육개혁, 교육인증 그리고 건축교육,” 건축, 제43권, 제7호, p.11, 1999.

[9] 송홍준, “대학교육 만족도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8호, pp.556-567, 2016.

[10] <http://eduup.kcue.or.kr>

[11] <http://www.abeeek.or.kr>

[12] <http://www.ikmee.or.kr>

[13] <http://www.kaab.or.kr>

[14] <http://www.kabea.or.kr>

[15] <http://www.kabone.or.kr>

[16] <http://www.kidee.org>

[17] <http://www.kimee.or.kr>

[18] 교육부, *대학재정사업 개편 방향(시안)*, 2016.

[19] 교육부, *2014년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시행계획*, 2014.

[20] 교육부, *2017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기본계획(안)*, 2017.

[21] 박용운, 김경미, 유태완,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운영 학과의 NCS 기반 교육과정 설계모형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2호, pp.652-665, 2016.

[22] P.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phenomenologist view it. In R.Valle & M.King(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48-78, 1978.

[23] N. K. Denzin,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str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2nd. ed.*, New York: McGraw-Hill, 1978.

저 자 소 개

서 범 중(Boem-Jong Seo)

정희원



- 1988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2004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9년 9월 ~ 현재 :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정책

하 정 윤(Jung-Youn Ha)

정회원



- 2003년 2월 : 충북대학교 교육학
과(문학사)
- 2015년 8월 : 충북대학교 교육학
과 교육행정전공(교육학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순천제일
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교육정책, 지방교육, 고등교육

강 지 연(Jiyeon Kang)

정회원



- 2006년 8월 : 충북대학교 교육학
과(문학사)
- 2016년 8월 : 건국대학교 교육학
과 영재교육전공(교육학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충북대학
교 교육혁신연구원 전임연구원

<관심분야> : 영재교육, 교육심리, 고등교육

박 태 양(Taeyang Park)

정회원



- 2016년 2월 : 충북대학교 교육학
과(문학사)
- 2016년 3월 ~ 현재 : 충북대학
교 교육학과(교육행정전공 석사
과정)
- 2015년 12월 ~ 현재 : 충북대학
교 교육혁신연구원 연구원

<관심분야> : 교육행정, 교육정책, 고등교육